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73



Contents

※ 2025.04.03.(목) 기준(대상 기간 : 2025.03.27.~2025.04.02.)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수소

- 한일, 수소경제 협력 강화 위한 민간 플랫폼 구축(2025.03.27)1
- 대광위, 통합 환승센터·수소트램 등 미래 광역교통 로드맵 발표(2025.04.02)1
- 동해시, 제4회 그린수소 P2G 심포지엄 개최(2025.03.27)2
- 수소 튜브트레일러 생산기업 덕산에테르씨티, 완주에 공장 준공(2025.03.27)2
- 충북도, 수소 기술교류회 개최로 산업 협력체계 강화(2025.03.27)2
- 군산시의회, 수소 파워트레인 시험·인증평가 인프라 구축 타당성 점검(2025.03.27) 3
- 서산시, 수소산업 벤치마킹 위해 전북테크노파크 방문(2025.03.29)3
- 속초시, 종합경기장에 60억 투입해 수소충전소 추가 신설(2025.03.30)4
- 태안군,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58억여 원 지급(2025.03.31)4
- 해오름동맹, 초광역 전철망·수소메가시티 조성 추진(2025.04.01)5

■ 우주

- 우주청, 민간 위성정보활용 시장 창출에 1437억 투자 계획 발표(2025.03.28)6
-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우주항공협회로 명칭 변경 및 재출범(2025.04.01)6
-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5개년 육성 기본계획 수립(2025.03.27)7
- 대전시, 국제 우주 컨퍼런스 ISS 2025 개최로 글로벌 우주도시 도약(2025.03.28)8
- 경남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가속화 위한 회의 개최(2025.03.31)8

- 사천시·남해군, 사천우주항공 고속국도 건설 공동 건의(2025.03.31)9
- 태백시, 폐광서 달 탐사 전초기지로 변신(2025.03.31)9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수소
 - 국내 수소모빌리티 기술 요람, 경남 창원 한국자동차연구원(2025.03.27)10
- UAM
 - KCL-KAIA, UAM·지능형 도로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2025.03.28)11
- 우주
 - 산림청, 지상-우주 통합 기술로 대형산불 화선 탐지 완료(2025.03.27)12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수소
 - 다원시스, 핵융합 넘어 AI·DC 그리드·그린수소로 미래 에너지 혁신(2025.03.27) ..12
 - 국산 수소전기버스, 중국산 전기버스와 시장 경쟁력 확보(2025.03.29)13
 - 포스코, 수소·AI로 무장한 미래형 제철소 구축 본격화(2025.03.30)13
 - 두산퓨얼셀, 4000억대 수소연료전지 계약 불발(2025.03.31)14
 - 한국남동발전, 경상국립대와 수소에너지 전문가 양성 협력(2025.04.01)14
 - 부산대 수소선박기술센터, 미국선급협회와 국제 공동연구 추진(2025.04.01)15

- **UAM**
 - 건설업계, UAM 버티포트 개발 등 신사업 역량 강화(2025.03.31)16

- **우주**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우주-방산 기술력으로 글로벌 진출 확대(2025.03.27)17
 - 한화에어로스페이스-페리지에어로, 우주 수송기술 개발 협력(2025.03.27)17
 - 우주산업 수혜주로 떠오른 로켓랩, 성장 가속화(2025.03.31)18
 - 한서대, 민간 궤도 수송선 개발 기업과 업무협약 체결(2025.03.27)18
 - 국립창원대, 글로벌대학 선정 · 사천우주항공캠퍼스 개교로 새 도약(2025.03.30)19
 - 우주 팽창 이론 변화, 암흑 에너지 밀도 감소 현상 발견(2025.03.27)19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수소 분야

| 구분 | 제목 및 주요 내용 |
|------|--|
| 중앙부처 | <p>□ 한일, 수소경제 협력 강화 위한 민간 플랫폼 구축(2025.03.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 일본이 도쿄에서 '제2회 한·일 수소협력 대화'를 개최하고 청정수소 공급망, 탄소집약도·인증, 표준·기준, 안전 분야 협력 논의. 한국에서는 산업부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과 H2KOREA 등 6개 기관 참석. 지난해 합의한 4개 워킹그룹의 세부 협력 의제 점검 - 양국은 청정수소 공급망 협력을 위해 '한·일 민간 수소 공급망 및 활용 협력 플랫폼' 구축 합의. 한·일 수소 세미나를 통해 청정수소 공급망, 수소혼소발전, 수소모빌리티 확산 협력 구체화. 청정수소 생산 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론 고도화도 추진 - '표준·기준' 분야에서는 수소기술 국제표준화 협력, '안전' 분야에서는 수소안전 정보·사례 공유 확대 합의. 최우혁 정책관은 "한·일은 청정수소 선도국이자 수요국으로 이해관계가 크다"며 "글로벌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 확대" 강조 |
| | <p>□ 대광위, 통합 환승센터·수소트램 등 미래 광역교통 로드맵 발표(2025.04.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4월 2일 'GTX와 PM, 지하철,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 한번에 환승할 수 있는 통합환승센터'와 '수소트램, 도심형 대용량 간선급행버스' 등 미래형 교통수단을 담은 '광역교통 기술개발 로드맵' 설명회 개최. 한국교통연구원, 대한교통학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7개 기관 관계자 참석. 대광위는 기존 인프라 공급이나 이해관계 조정 방식 넘어 기술개발 통한 근본적 해결책 제시 계획 - 주요 기술로 소개된 통합환승센터는 디지털트윈 활용한 환승 플랫폼 개발로 GTX, PM, 지하철, 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 환승 시간 대폭 감축. 교통약자에게 최적 동선 제공하는 실내 내비게이션과 재난예측 시스템 구현 예정. 차세대 철도신호체계 구축으로 외국산 의존도 낮추고 비용 절감, 기술 종속 문제 해소. 열차운영 기술 고도화 위한 신호통신 시스템과 선로전환 조정장치 개발 - 안전한 수소트램 개발을 위한 시험 기준 마련과 시제 차량 제작, 수소충전소 포함한 영업노선에서 실증 추진. 연구개발 완료 시 대전, 울산 등에서 도입 예정인 수소트램 사업의 신뢰성과 안전성 강화 기대.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설명회 제기 의견을 로드맵 최종안 수립 때 충분히 반영할 것"이며 "기술개발 통해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 서비스 공급하겠다" 강조 |

| 구분 | 제목 및 주요 내용 |
|-----|--|
| 지자체 | <p>□ 동해시, 제4회 그린수소 P2G 심포지엄 개최(2025.03.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시가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현진관광호텔과 북평산업단지에서 '제4회 그린수소 P2G 심포지엄' 개최.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와 한국동서발전이 공동 주최하고 산·학·연·관 전문가 200여 명 참석해 최신 기술과 미래 수소 산업 방향 논의. 동해시에서 4년 연속 열리며 다양한 기관이 협력 모색하는 자리로 정착 - 첫날 오전 수소 산업 산·학·연 세미나에서는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의 기술 개발 사업 발표와 토론 진행. 오후 심포지엄에서는 '석유에서 수소의 시대로' 주제의 기조 강연과 그린수소 정책 동향, 차세대 수전해 기술, 수소·암모니아 가스터빈 기술 개발 등 주제 발표 예정 - 둘째 날에는 북평산업단지 내 열공급형 연료전지 시설과 그린수소 R&D 클러스터, 삼척시 수소 생산기지과 시범도시 견학. 이인섭 산업정책과장은 "그린수소 P2G 심포지엄이 4회를 맞아 매우 뜻깊다"며 "이번 행사로 동해시가 수소 산업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길 기대" 전망 |
| | <p>□ 수소 튜브트레일러 생산기업 덕산에테르씨티, 완주에 공장 준공(2025.03.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 운송용 튜브트레일러 생산 전문기업 덕산에테르씨티가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에서 공장 준공식 개최하고 생산 본격화. 준공식에는 완주군수, 군의회 의장,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현대로템 등 150여 명 참석. 2023년 투자협약 체결 후 총 227억 원 투자해 174억 원 들여 생산공장과 국내 최대 초대형 고압가스용기 및 수소튜브트레일러 재검사장 구축 - 덕산에테르씨티는 국내 유일 Type1, Type4 운송저장용 용기 제조업체로 2022년 산업부가 선정한 수소전문기업. 완주공장 준공으로 수소튜브트레일러 생산부터 재검사까지 생산라인 구축해 글로벌 기업 성장 기반 마련. 수소생태계 갖춘 완주군에 입주해 수소정책 시너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유희태 완주군수는 "국내 최대 수소 운송저장용 튜브트레일러 생산 기업 유치를 환영한다"며 "완주 대표 수소기업으로 세계시장 선점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아끼지 않겠다" 발언. 준공 공장은 핵심 인프라 확보로 덕산에테르씨티의 완주 진출은 수소 산업 중심지로서 완주군 위상 강화와 지역 수소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 |
| | <p>□ 충북도, 수소 기술교류회 개최로 산업 협력체계 강화(2025.03.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도와 충북에너지산업융합원이 음성군에서 수소 산업 최신 동향과 기술 공유 위한 기술교류회 개최. 수소 에너지 글로벌·국내 동향, 기술 혁신, 정책 전망 주제로 충주시, 음성군, 가스안전공사, 생산기술연구원 등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

| 구분 | 제목 및 주요 내용 |
|-----|--|
| 지자체 | <p>기업 관계자 50여 명 참석. 트럼프 정부 수소 정책, 청록수소 기술, 투자 프로그램, 전문기업 지원사업 등 강연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연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연료 중심 정책에 따른 LNG·RNG 협력 강화와 수소 시장 진출 전략 논의. 온실가스 없는 청록수소 기술과 제도적 지원 중요성 강조.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수소기업 투자·펀딩 프로그램 소개, 충북테크노파크는 예비수소전문기업 맞춤형 지원 전략 발표. 전문가-기업 간 질의응답 및 애로사항 논의도 마련 - 충북도 관계자는 “수소 기업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협력체계 강화하겠다”며 “글로벌 에너지 정책에 부응해 기업들이 전략 수립하고 청록수소 기술 발전시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 발언. 산업부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에서 충북은 4년 연속 선정돼 3개 기업을 수소전문기업으로 전환. 2025년에는 12개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해 수소산업 특화지역 기반 구축 계획 |
| | <p>□ 군산시의회, 수소 파워트레인 시험·인증평가 인프라 구축 타당성 점검(2025.03.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 신뢰성 평가 기반구축 사업 부지 방문해 타당성 점검. 총 160억 원 중 시비 25억 원 투입되는 사업은 한국건설기계연구원 부지에 장비·시설 구축 계획. 수소 엔진 핵심 부품·모듈의 신뢰성 평가 기법 개발과 중소기업 신제품 개발·상용화 지원 목표 - 지난 임시회에서 관내 기업과 실효적 협력 및 상용화 계획 미비로 시비 매칭 출연 타당성 부족해 동의안 부결된 바 있어, 이번 방문은 사업 타당성 논의 첫 자리로 마련. 시비 투입 사업인 만큼 군산시 관내 기업에 실질적 혜택 방향에 중점 논의. 의원들은 사업 취지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시비 투입 시 관내 기업 도움 위한 세부계획 마련 강조 - 사업 전 관내 기업 구체적 지원 대책 수립과 예산 집행 시 관내 제품 우선 구매 주문. 지해춘 위원장은 “사업 성공적 추진 위해 관내 기업들이 실질 참여하고 혜택 받을 수 있는 명확한 지원 방안 마련이 중요”하며 “의회도 계속 점검하고 효과적 추진 위해 관심 갖겠다” 발언. 국가 연구 사업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 확대가 중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
| | <p>□ 서산시, 수소산업 벤치마킹 위해 전북테크노파크 방문(2025.03.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서산시 관계자들이 수소산업 육성 성공사례 벤치마킹과 수소도시 조성 자문 위해 완주 소재 전북테크노파크 통합운영안전관리센터 방문. 전북테크노파크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살펴보고 수소산업 발전 모델 조사, 핵심 인프라 및 정책 자문 구하며 지속가능한 수소산업 발전 방향 논의 |

| 구분 | 제목 및 주요 내용 |
|-----|--|
| 지자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테크노파크 통합운영안전관리센터는 전주-완주 수소도시의 컨트롤타워로 수소도시 인프라 실시간 데이터 수집, 디지털트윈기반 수소생산 시스템 관리. 수소산업 주요 모델로 전국 지자체와 관련 기관의 벤치마킹 대상. 현재 부안군 수소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진행 중이며 통합안전운영센터 구축 예정으로 호남 광역권 수소산업 거점기관 목표 -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전주-완주수소시범도시 조성 기점으로 부안군도 수소에너지 기반 자립형 수소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며 “수소산업 거점기관으로서 에너지 자립 위한 산업정책 연구하고 관련 기업 적극 지원하겠다” 발언. 전북테크노파크는 충남 서산시와 수소 산업 노하우를 공유하며 지역 간 협력을 통한 국가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 |
| | <p>□ 속초시, 종합경기장에 60억 투입해 수소충전소 추가 신설(2025.03.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포한 속초시가 버스까지 충전 가능한 수소충전소를 추가 신설. 속초시와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은 3월 28일 시장 집무실에서 속초종합경기장 수소충전소 위탁 협약 체결. 이번 협약은 신설 충전소가 종합경기장 내 위치해 관리공단의 협조 필요성 감안,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위해 조기 체결 -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60억원으로 추진되는 수소충전소는 5월까지 실시설계와 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완료 후 6월 착공,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 계획. 수소버스까지 충전 가능한 상용 충전소로 구축되며, 넥쏘 수소자동차 기준 일일 200대 충전 가능한 규모 - 두 번째 충전소 운영으로 기존 충전소 고장 시 타 지역 이동 불편 해소와 충전 속도·편의성 향상 기대. 이병선 시장은 “수소충전소 설치는 탄소중립 실현과 미세먼지 저감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수소차 이용자 불편 해소하고 청정 문화관광 도시에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강조. 속초시는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기반 마련 중 |
| | <p>□ 태안군,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58억여 원 지급(2025.03.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태안군이 친환경 차량 보급 위해 전기자동차 57억 1400만원(국비 23억 9900만원, 도비 12억 4050만원, 군비 20억 7450만원)과 수소전기자동차 1억 6250만원(국비 1억125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 등 총 58억여원 보조금 지원. 지원 대수는 전기차 361대(승용 233대, 화물 128대), 수소차 5대(일반 4대, 우선순위 1대) 등 총 366대로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 전기차는 1·2차로 나눠 신청 진행하며 1차는 6월 30일까지 250대(승용 160, 화물 90) 지원, 2차는 하반기 공고 예정. 지원액은 승용 전기차 최대 1280만원, 전기화 |

| 구분 | 제목 및 주요 내용 |
|-----|---|
| 지자체 | <p>물차 최대 2450만원. 신청 자격은 신청일 3개월 전부터 계속 태안군에 주소 둔 18세 이상 군민과 법인·기업. 동일인이 재지원 제한기간(2년) 내 2대 이상 동일 차종 구매 시 보조금 미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차는 '넥쏘' 1종으로 1대당 3250만원 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전부터 계속 태안군 주소 둔 18세 이상 군민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대상. 2년 내 동일 차종 구매 시 보조금 미지원. 전기·수소차 모두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 선정, 판매업체와 구매계약 후 업체 통해 신청서 제출. 군 관계자는 “전기·수소차는 소음·배출가스 없어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적”이라며 군민 관심 당부 |
| | <p>□ 해오름동맹, 초광역 전철망·수소메가시티 조성 추진(2025.04.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시와 경북 포항시, 경주시 등 해오름동맹 3개 도시가 '광역 전철망 구축'과 '수소 메가시티 조성' 등 초광역 협력 사업에 힘 모음.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은 울산연구원과 경북연구원 전략연구 바탕으로 '2025 해오름동맹 도시발전 시행계획' 수립해 경제·산업·해양, 도시기반, 문화·관광, 방재·안전, 추진체계 등 5대 분야 43개 공동 협력사업 추진 - 울산 주도 '동남권 해오름 초광역전철망 구축'은 동해선 광역전철이 태화강역에서 북울산역까지 연장 개통 후 1단계로 경주역까지 연장, 2단계로 포항역과 동대구역까지 추가 연장하는 계획. 기존선 활용 시 총 연장 132.8km 규모. 수소 산업에서는 울산의 수소 배관공급 테스트베드와 선박 앵커기업, 경주의 모빌리티 핵심 부품 생산 기업, 포항의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계획을 기반으로 글로벌 수소 메가시티 조성 공동 대응 - 이 외에도 '광역 대중교통 활성화' '물 부족 공동 대응' '산업대 전환 맞춤형 기술 교육' '동해안 철강벨트 경쟁력 강화' '자전거길 네트워크' '지역 특화 크루즈 관광 상품' '청년플랫폼 공동 활용' '해오름산업벨트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신규 사업 포함. 추진단은 35개 계속사업의 추진을 제고와 내실화, 8개 신규 사업의 실행 방안 협의에 집중하며 분과별 실무협의회 구성해 사업 추진 상황 점검 예정 |

 UAM 분야

| 구분 | 제목 및 주요 내용 |
|------|------------|
| 중앙부처 | - (해당 없음) |

| 구분 | 제목 및 주요 내용 |
|-----|------------|
| 지자체 | - (해당 없음) |

☞ 우주 분야

| 구분 | 제목 및 주요 내용 |
|------|---|
| 중앙부처 | <p>☐ 우주청, 민간 위성정보활용 시장 창출에 1437억 투자 계획 발표(2025.03.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항공청이 3월 27일 서울 코리어나호텔에서 '제1회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민간 위성정보활용 시장 창출 기반 조성 및 위성정보기반 국민체감형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해 1437억원 투자 계획 발표. 실무위는 범부처 위성정보 활용 관련 정책 안전을 심의하는 의결기구로 우주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14명의 정부위원과 산·학·연 전문가 6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 -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수립된 '제3차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에 근거한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의결. 계획에 따라 △민간 위성정보 활용시장 여건 조성 △위성정보의 공공영역 기여 확대 △위성정보 활용지원 정책 기반 정비 △위성정보 활용역량 제고 등 4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12개 부처에서 진행하는 52개 사업에 총 1437억원 투자 예정 - 윤영빈 우주청장은 “민간의 위성정보활용 산업생태계 기반을 마련해 우주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재난재해, 기후변화, 해양영역인식 등 공공 행정서비스에 널리 활용돼 국가 위성정보의 가치를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될 것” 강조. 이번 위원회에서는 민간위원 6명에 대한 위촉식도 함께 진행. 우주청은 위성정보 활용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 |
| | <p>☐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우주항공협회로 명칭 변경 및 재출범(2025.04.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약칭을 '우주항공협회'로 신설했다고 4월 1일 발표. 지난 2월 28일 개최된 제33차 정기총회에서 협회 명칭 변경 및 소관 부처 이관(산업통상자원부→우주항공청)을 위한 정관 개정안을 심의·의결. 이후 우주항공청의 인가 및 변경등기 절차를 마무리하며 공식적인 명칭 변경 완료. 이번 명칭 변경은 뉴 에어로스페이스 시대 도래와 우주항공청 출범에 맞춰 일관성과 통일성 확보하기 위한 조치 - 12자로 길었던 기존 명칭을 간소화해 가독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우주항공 산업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음. 올해 우주항공협회는 △우 |

| 구분 | 제목 및 주요 내용 |
|------|--|
| 중앙부처 | <p>우주항공산업 생태계 고도화 지원 제도 마련 △수출 경쟁력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사업 발굴 △회원사 우선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 강구영 우주항공협회장은 “이번 명칭 변경을 계기로 우주항공 분야의 미래 먹거리 발굴과 이종 산업과의 융복합을 적극 추진하겠다”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항공협회는 1992년 설립된 정부 산하 단체로, 150여 개의 국내외 우주항공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 주요 활동으로는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 조사·연구, 항공 R&D 사업 지원, 국제협력 및 수출 지원, 항공품질그룹 운영,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개최 등이 있으며 국내 우주항공산업 발전의 핵심 역할 담당. 새로운 명칭으로 우주항공산업의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고 성장기반을 다지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 |
| 지자체 | <p>□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5개년 육성 기본계획 수립(2025.03.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천시가 민간·지자체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 속 우주도시로 도약을 위한 움직임 본격화. 2023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단 조립장 유치를 시작으로 우주항공·방산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정하여 2025년 순천시 3대 경제축 중 하나로 자리매김. 지난해 한화 단 조립장 착공과 더불어 우주항공 분야 특화 글로벌대학30 선정, 「항공우주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전담부서 신설 등 우주도시 도약 위한 성장 동력 확보 - 조례를 근거로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시행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IST,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각계 전문가들과 수차례 정책회의를 거쳐 차별화된 항공우주산업 육성 전략 수립. 우주항공 지·산·학·연 거버넌스 구축을 2025년 주요 실행계획으로 발표하고 항우연 전문가 초청강연, KAIST 상생 간담회 등 주요 기관과 네트워크 강화, 향후 한화 단 조립장 준공 시작으로 진행될 우주·방산 기반 인프라 설립 - 3월 24일 최종 수립된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에는 “일류 생태수도, 전략 차별화를 통한 뉴스페이스 시대 선도“ 비전 아래 3대 중점 추진 전략(우주산업 다각화, 산업기반 최적화, 거버넌스 광역화)과 10개 세부 추진사업 포함. 국가 우주 위성센터 설립, 엔진추진시스템 시험시설 구축, 방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위성·방산으로 산업 생태계 확대 계획. 노관규 순천시장은 “기본계획으로 우주항공산업 방향성을 집중시키고 중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 기할 것” 강조 |

| 구분 | 제목 및 주요 내용 |
|-----|---|
| 지자체 | <p>□ 대전시, 국제 우주 컨퍼런스 ISS 2025 개최로 글로벌 우주도시 도약(2025.03.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시가 6월 세계 우주산업 흐름을 주도할 국제 우주 컨퍼런스(International Space Summit) 'ISS 2025' 개최를 통해 글로벌 우주 도시로의 도약에 시동. 3월 28일 시청 대강당에서 국내 1호 우주 스타트업 상장기업인 킨텍 스페이스그룹과 함께 'ISS 2025' 공동 개최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역 우주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와 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전방위적 협력 추진 - 'ISS 2025'는 킨텍이 2023년부터 주최해 온 민간 주도 우주 국제 컨퍼런스로, 6월 3일~5일까지 3일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예정. 세계 40여 개국의 우주 전문가, 학자, 글로벌 기업 관계자, 정부 관계자, 투자 분야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첨단 우주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 공유하고 산업 간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하는 장이 될 전망. 특히 우주탐사, 우주개발, 우주통신, 우주 관측 등 다양한 분야 강연과 토론, 전시 프로그램 진행 - 대전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심으로 항우연, 천문연, KAIST 등 14개 우주 분야 핵심 연구기관과 88개 우주기업이 집적된 인프라 기반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 구축 △우주기술 규제자유특구 추진 △대전샛 프로젝트 △우주발사체 검증지원 등 대전형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에 역량 집중. 이번 'ISS 2025'를 계기로 국제 우주 행사 정례화를 도모하고 대전을 글로벌 우주 산업 클러스터이자 기술 교류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시킬 계획 |
| | <p>□ 경남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가속화 위한 회의 개최(2025.03.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도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가속화를 위해 3월 31일 도청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종합추진단 4차 회의'와 '우주항공복합도시권 지자체 실무협의회 1차 회의' 개최. 종합추진단 회의는 김명주 경제부지사 주재로 도·사천시 관계 부서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사업과 도로, 철도, 공항 등 주요 인프라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전문가 자문과 토론 진행 - 경남도는 작년 1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종합추진단 구성 후 관련 인프라 사업 발굴과 추진 전략 수립 중. 2월 우주항공청이 신청사 부지를 우주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 내로 결정함에 따라 우주항공청 주변에 산업, 연구, 교육, 컨벤션 기능을 복합화한 산학연 혁신생태계 구축 방안 집중 논의. 주요 내용은 △성장주기별 기업지원공간 마련 △산학협동 연구단지 조성 △미래기술 인프라 구축 △복합지원단지 조성 등 공간과 기능 융복합한 혁신환경 구축 -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인근 6개 시군(사천, 진주, 고성, 남해, 하동, 산청)을 우주항 |

| 구분 | 제목 및 주요 내용 |
|-----|---|
| 지자체 | <p>공복합도시권으로 묶어 '우주항공복합도시권 지자체 실무협의회' 구성, 지역별 중요사업 발굴과 발전방안 논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에도 계속 힘을 모으기로 합의. 김명주 부지사는 "우주항공청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 국가 컨트롤타워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변 개발 포함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경남 우주항공산업 비전 실현이 곧 국가적 비전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강조</p> |
| | <p>□ 사천시·남해군, 사천우주항공 고속국도 건설 공동 건의(2025.03.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천시와 남해군이 '사천우주항공 고속국도 건설'을 바라는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 박동식 사천시장과 장충남 남해군수는 3월 31일 사천우주항공 고속국도를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 서면 체결. 사천우주항공 고속국도는 총 사업비 1조 3954억원, 연장 18.3km 왕복 4차선 규모로, 연화산JC에서 삼천포항IC 연결하는 100% 국비 사업 - 공동 건의문은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교통 인프라 강화와 함께 남해~여수 해저터널 개통 등에 따른 관광객 급증 대비 필요성 강조. 건의문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신청사가 들어서는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사천지구는 열악한 교통·물류 인프라로 증가하는 우주항공산업 물류량 소화 불가능하며 기업유치에도 부정적 영향 미쳐 우주항공국가산단 활성화와 우주항공산업 발전에 걸림돌 우려 - 특히 최근 착공한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사업 등 남해안 관광활성화 기반 시설 완공 시 관광객 급증 예상. 양 지역의 부족한 교통·물류 인프라, 관광객 분산, 기업 유치 문제 해결과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사천우주항공 고속국도의 조속한 건설 필요성 주장. 박 시장과 장 군수는 "우주항공청의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과 남해안 관광활성화를 위해 사천우주항공 고속국도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며 "양 시군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생하고 협력하겠다" 강조 |
| | <p>□ 태백시, 폐광서 달 탐사 전초기지로 변신(2025.03.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태백시 옛 함태광업소 폐광도에서 3월 28일 '폐광 내 달 현지자원 실증 시연회'가 열려 달 탐사 로버 시연 진행. 해발고도 900m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태백시는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우주자원 탐사 기술의 테스트베드로 변신. 폐광 내부 환경은 달의 남극과 유사해 빛이 없고 기온이 낮으며, 지형이 험하고 미세 먼지가 심해 장비 성능 시험에 적합.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월 태백시와 양해각서 |

| 구분 | 제목 및 주요 내용 |
|-----|--|
| 지자체 | <p>체결하고 폐광에서 우주자원 탐사 기술 연구 계획. 폐광에서 우주자원 탐사 기술 실증은 세계 최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 표면에는 100만t 이상의 헬륨-3와 15종 이상의 희귀금속 등이 매장돼 있으며, 경제적 가치는 약 560경원으로 추정. 헬륨-3 1g은 석탄 40kg에 해당하는 에너지 생산 가능. 김경자 지질연 우주자원개발센터장은 “세계적 자원전쟁에 대응하려면 한국이 자체적으로 우주자원을 개발해야 하며, 여러 기관이 힘을 합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강조. 이를 위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28개 국내외 기관이 K-달현지자원개발단을 구성해 대규모 연구과제 추진 계획 - 시연회에서는 여러 기관이 개발한 장비들 공개. 한국전기연구원의 무선송전시스템은 레이저로 전선 없이 1km 떨어진 곳까지 50% 효율로 전력 전송 가능. KAIST 방효충 교수 개발 초저궤도 위성 큐브셋은 달 표면 10~50km 저궤도에서 자원을 자세히 관찰. 이평구 지질연 원장은 “1960년대 태백 광부들이 캐낸 석탄이 한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듯이, 미래 세대 에너지원 탐사를 이곳 태백에서 시작해 더욱 뜻깊다” 소회 밝힘. 태백의 폐광은 미래 우주자원 탐사의 중요한 전초기지로 새 역할 부여받음 |
| | <p>□ 국내 수소모빌리티 기술 요람, 경남 창원 한국자동차연구원(2025.03.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원시 국가산업단지의 한국자동차연구원 미래차전환센터는 국내 수소모빌리티 기술 산실. 정부와 지자체에서 700억원 지원받아 설립된 이곳은 최대 규모 공공 연구시설. 현대차 등 60여 기업과 협업하며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 부족 기업들이 센터 인프라로 부품 국산화, 내구성 향상 추진 - 주요 시설은 연구용 수소충전소, 가스반복시험동, 수압반복시험동, 수소전주기 내구시험동으로 구성. 연구용 충전소는 버스용 충전설비 2대와 부품 실증형 설비 2대 갖춰 다양한 차종 연구 가능. 특히 충전소 구축비용 절반 차지하는 압축기 국산화로 20억~25억원 충전소 비용 절감 기대 - 수소전주기 내구시험동에는 국내 최대 전기동력 다이내모 설비 구축, 3000kW(3MW) 실험 지원. 수소 상용차 최대출력(300kW)보다 높아 대형 상용차, 특수목적 차량, 군용 차량까지 실험 가능. 부문동에서는 대용량 연료전지 평가와 UAM, 선박용 연료전지 실험도 수행. 소재 단위부터 완성차까지 일괄 연구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수소 분야

| 구분 | 제목 및 주요 내용 |
|------|------------|
| 국가기관 | - (해당 없음) |
| 지방기관 | - (해당 없음) |

☞ UAM 분야

| 구분 | 제목 및 주요 내용 |
|------|--|
| 국가기관 | <p>□ KCL-KAIA, UAM · 지능형 도로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2025.03.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과 미래전략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6년 포괄적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술 개발과 미래 전략 분야 공동 연구 추진 위해 마련. 양 기관은 기후변화 대응 다환경 실험시설 구축, 균열제어형 자기치유 콘크리트 기술 개발 등 대형 연구개발 사업 성공적 수행 통해 국토교통 기술 혁신 견인 - 이번 협약으로 도심항공교통(UAM) 체계 구축, 자율주행차 위한 지능형 도로 인프라 개발,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조성, 탄소중립형 친환경 건설기술 개발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 협력 강화 계획. 천영길 KCL 원장은 “양 기관 보유 기술력과 연구 역량 결집해 연미래 국토교통 기술 혁신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발언 - 양 기관은 지속적 협력 통해 연구개발 성과 실용화 촉진하고 국토교통 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방침. 특히 UAM 등 첨단 모빌리티와 지능형 인프라 구축에 중점 두고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한편, 친환경 건설기술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 창출 기대. 다양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 발굴과 전문 인력 교류 통해 국토교통 분야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박차 |
| 지방기관 | - (해당 없음) |

☞ 우주 분야

| 구분 | 제목 및 주요 내용 |
|------|---|
| 국가기관 | <p>☐ 산림청, 지상-우주 통합 기술로 대형산불 화선 탐지 완료(2025.03.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청이 지상에서 우주까지 통합 기술로 경북 5개 시·군(의성·안동·영양·영덕·청송) 대형산불 화선 식별 완료. 전례 없는 확산 속도를 보인 이번 산불은 3월 25일 서쪽 선단지 화선에서 영덕 강구항(직선거리 50km)까지 비화했으며, 불티가 12시간 내에 최대 51km 이동. 불티가 민가와 산림에 동시에 떨어져 불길 키우고, 이로 생긴 불티가 다시 확산되는 악순환으로 민가 및 시설 피해 발생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매핑 드론, 적외선 탐지 비행기, NASA Suomi NPP 위성에 탑재된 가시적외선이미지센서(VIIRS) 등을 총동원해 전체 화선 이미지 작성. 지상에서는 드론으로 화선을 고해상도로 지도화해 대피와 진화 전략 수립에 활용, 해양경찰청 소속 고정익항공기로 산불 최외곽 좌표 파악. 우주에서는 NASA 위성 기반 기술로 전국 대형산불 위치와 확산 방향 및 경계 정보 수집 - VIIRS는 375m 해상도로 고온 영역의 적외선 신호를 탐지해 산불을 민감하게 포착하며, 넓은 지역(스캔 폭 3000km)을 한번에 관측 가능. 주·야간, 안개, 연무 등 시야 확보 어려운 조건에서도 탐지 가능한 장점. 내년 농림 위성 발사되면 5m 해상도로 120km 촬영이 가능해 기존 위성과 융합 활용으로 대형산불 모니터링 정확도 향상 예상. 임상섭 산림청장은 “연무 등 기상 악화 속에서도 대형산불 화선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 성공, 진화 전략 고도화와 주민 대피 동선 확보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할 것” 강조 |
| 지방기관 | - (해당 없음) |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수소 분야

| 구분 | 제목 및 주요 내용 |
|------|---|
| 민간기업 | <p>☐ 다원시스, 핵융합 넘어 AI·DC 그리드·그린수소로 미래 에너지 혁신(2025.03.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시스가 '케이스타', '이터' 프로젝트에서 확보한 핵심 기술로 AI, DC 그리드, 그린수소 분야로 사업 확장하며 미래 에너지 시장 선도. 1996년 설립 후 전력 전자 |

| 구분 | 제목 및 주요 내용 |
|------|---|
| 민간기업 | <p>기술 기반으로 사업 펼쳐며 2010년 코스닥 상장한 기업은 한국형 핵융합 연구 장치와 국제 핵융합 실험로 핵심 전원 공급 장치 개발로 기술력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성장하는 AI 산업의 전력 소비 문제 해결을 위해 AI 기술 활용 DC 그리드 솔루션 개발 주력. 기존 AC 전력망보다 에너지 효율 높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가능한 DC 그리드는 AI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으로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예측 수행해 에너지 소비 최적화. AI 산업 성장 위한 핵심 인프라로 전망 - 수전해 시스템 등 그린수소 생산·활용 기술 개발에도 적극 투자 중. 탄소 배출 없는 친환경 에너지원인 그린수소는 미래 수소 경제의 핵심 축으로 기대. 관계자는 “핵융합, AI, DC 그리드, 그린수소 등 미래 에너지는 인류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이라며 “기술 개발과 투자로 미래 에너지 시장 선도하고 에너지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 강조 |
| | <p>□ 국산 수소전기버스, 중국산 전기버스와 시장 경쟁력 확보(2025.03.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전기버스가 기존 전기버스보다 연료 가볍고 주행거리 길다는 장점으로 차세대 운송 수단으로 각광받고 정부 보조금 확대로 보급 증가 전망. 현대차의 '유니버스'는 고속형 대형 버스 중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탑재해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 미배출. 원더모빌리티는 유니버스 66대 도입해 24대를 삼성전자 통근버스로 운영 중 - 수소전기버스는 상용차의 미래로 주목받는 이유는 주행거리 우수성. 전기버스는 배터리 무게(약 2t) 때문에 주행거리 한계 있지만, 수소전기버스는 가벼운 수소 연료 사용으로 차체 가볍고 주행거리 2배 수준. 유니버스 최대 주행거리 635km로 삼성 전자 통근버스 기준 5~6일에 한번 충전. 신생 충전소들은 15분 내 95% 충전 가능 - 국산 수소전기버스는 중국산 전기버스의 시장 잠식 대항마로 기대. 중국산 전기버스는 저렴한 LFP 배터리로 국산보다 1억원 저렴해 2023년 국내 점유율 54.1% 차지. 환경부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중국산 점유율 36.2%로 감소. 현대차는 세계적 수준의 수소연료전지 기술로 수소버스 사업 확대 중. 지난해 623대 판매해 전년 대비 두 배 증가, 올해 1000대 이상 목표. 충전·정비 인프라 확충과 가격경쟁력 확보가 과제로 남음 |
| | <p>□ 포스코, 수소·AI로 무장한 미래형 제철소 구축 본격화(2025.03.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2고로는 '스마트 용광로'로 불리며 수십 년 빅데이터 기반 AI 기술 접목해 원료량, 쇳물 온도, 통기성 등 지표 정형화·표준화 성공. 과거 작업자가 1시간마다 온도 체크하던 것을 AI 센서가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혁신. 고품질 표준화로 설비 효율성 대폭 향상, 지난해 기준 누적 조강 생산량 약 11억 8000만 톤 달성 - 포스코의 품질 제일주의는 박태준 창업자의 완벽주의에서 출발, 작은 부실도 용납 |

| 구분 | 제목 및 주요 내용 |
|------|---|
| 민간기업 | <p>않는 정신은 글로벌 경쟁력의 근간. 해외 투자와 M&A로 외연 확장, 특히 2010년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인터내셔널) 인수로 글로벌 판매 채널 확대와 그룹 시너지 창출. 지난해 매출 72조 6880억 원, 영업이익 2조 1750억 원 기록하며 동남아, 미국 등 글로벌 설비투자 지속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환원철과 AI는 포스코 미래 제철소의 양대 축. 포스코 독자 기술 하이렉스(HyREX)는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로 물만 배출하는 친환경 방식. 인텔리전트 공장은 모든 공정 데이터 자동 수집·분석해 의사결정하는 지능형 제철소로 발전 중. 4족 보행 로봇 '스팟'이 위험 현장 점검하고, 스마트와이어볼이 컨베이어벨트 상태 확인하는 등 안전성과 효율성 모두 높은 미래형 제철소 구축 중 |
| | <p>□ 두산퓨얼셀, 4000억대 수소연료전지 계약 불발(2025.03.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산퓨얼셀이 4000억 원 규모 연료 전지 시스템 공급 계약이 해지됐다고 발표. 해당 금액은 지난해 매출액(4118억 원)에 맞먹는 수준. 두산퓨얼셀은 2022년 12월 한전기술·금호건설·LS일렉트릭과 110MW 규모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계약 체결했었고, 계약금은 3988억 원으로 계약 직전 해인 2021년 매출액(3814억 원)의 104.6%에 달하는 대형 수주였음 - 당시 두산퓨얼셀이 제시했던 연간 수주 목표인 240MW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였으나, 2년 넘게 착수 지시서가 미발급되면서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 해지. 두산퓨얼셀은 계약금 등 선수금이 없고 수주 실적에 반영되지 않은 계약이어서 재무적 영향은 없다고 설명. 관계자는 “2023년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CHPS) 등 입찰 시장 도입으로 산업 환경에 변화가 있었고 그 영향을 받은 것” 언급 - 이번 계약 해지는 국내 수소 연료전지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사례로,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등 정책 환경 변화로 인한 시장 구조 재편의 일환으로 평가됨. 두산퓨얼셀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시장 전략 수립 필요성에 직면. 향후 CHPS 등 제도적 틀 안에서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중요 과제로 부상 |
| 대학교 | <p>□ 한국남동발전, 경상국립대와 수소에너지 전문가 양성 협력(2025.04.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남동발전이 경상국립대학교와 손잡고 경남 최초로 무탄소 발전 전문가 양성에 나서기로 결정. 4월 1일 무탄소발전 전문가 특화교육 업무협약 체결하고 석탄 발전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계획. 그간 한국남동발전은 탄소중립 실현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목표로 수소 분야 지속 투자와 기술개발 추진해왔음 |

| 구분 | 제목 및 주요 내용 |
|-----|---|
| 대학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으로 석탄 넘어 수소 시대로 전환에 앞장서고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 경상국립대는 최신 기술, 재료, 무탄소에너지 등 에너지 기술 전반 연구 중인 지역 거점대학으로 경남 최초 무탄소에너지 전문가 양성 과정 개설 첫발. '정책, 기술, 연료, 안전, 건설' 5가지 핵심 교육 기반의 무탄소전문가 특화과정으로 미래 무탄소사업 중추적 역할 담당할 전문 인력 조기 육성 목표 - 남동발전은 올해 특화과정 개설 시작으로 지역대학들과 연계해 교육과정 확대하고 무탄소 교육 인증 추진 등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방안 모색 계획. 박진우 신성장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대학과 협력해 우수 인재 육성하는 중요한 발판 될 것”이며 “수소 등 무탄소 분야 핵심 전문가 육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무탄소에너지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 강조. 산학협력을 통한 전문가 양성은 국가 수소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전망 |
| | <p>□ 부산대 수소선박기술센터, 미국선급협회와 국제 공동연구 추진(2025.04.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대학교 수소선박기술센터가 미국선급협회(ABS)와 '액화수소운반선 및 초저온공학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협약(MoU)' 체결하고 협력관계 강화. 양 기관은 액화수소운반선 기술 교류, 액화수소 국제공동연구 및 인적 교류, 초저온공학 학술 활동 및 정보 교류 등 다방면 협력체계 구축 합의. 부산대 센터는 'K-조선 초격차 Vision 2040'의 핵심인 '액화수소운반선 상용화 기반기술 개발' 사업 주관기관으로 세계 최대급 액화수소운반선 'Hydro Ocean K' 건조 총괄 - 영하 253도에서 저장되는 액화수소 대량 운송은 기술적 난이도 높아 상용화 성공 사례 없는 최첨단 분야로 부산대가 세계 최대급으로 추진 중. 조선해양산업계 글로벌 탐티어 기술집단인 미국선급협회와 공동연구 협약은 부산대 센터의 액화수소분야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보여주는 성과이며, 다양한 초저온 영역 첨단 연구개발 가속화 기대 - 이제명 센터장은 “우리 대학과 미국선급협회 협력은 세계 최고 수준 초저온기술 바탕 차별화된 국제교류로 미래 수소경제 핵심분야인 액화수소 활용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중요 전환점”이라며 “인류 사회 미개척 분야인 초저온 연구 발전에 시너지 창출 노력 기울이겠다” 강조. 대런 레스코스키 ABS 한국대표는 “부산대 센터는 세계 유례없는 첨단 기술개발 집합체인 만큼 양 기관 협력으로 액화수소운반선 포함 친환경선박 기술분야 실질적 성과 도출 기대” 언급 |
| 해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

| 구분 | 제목 및 주요 내용 |
|----|------------|
| 기타 | - (해당 없음) |

☞ UAM 분야

| 구분 | 제목 및 주요 내용 |
|------|---|
| 민간기업 | <p>☐ 건설업계, UAM 버티포트 개발 등 신사업 역량 강화(2025.03.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계가 건설 경기 침체 속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위해 도심항공교통(UAM) 사업 역량 강화에 박차. UAM은 도심 상공 가로지르는 모빌리티가 정거장인 버티포트에 승객·화물 이송하는 새로운 교통수단 체계. 국내 대부분 건설사들이 UAM 관련 사업에 적극 나서며 연계 가능 사업까지 관심 확대. 국내 교통 시스템 획기적 변화 예상돼 UAM 시장 참여 기업 증가 전망 - 현대건설은 UAM을 미래 핵심 신사업으로 규정하고 버티포트 업무·상업시설 개발 등 연계 모색 중이며 구조·제반시설 설계·시공 연구개발 추진. 롯데건설도 유통, 관광, 인프라 주요 거점 연계한 버티포트 구축 계획과 기존 교통망 연계 UAM 서비스 제공 계획안 구상. 대우건설은 버티포트와 주변 포함한 복합개발 사업에 큰 관심 보이며 기존 인프라와 도시개발 결합한 대규모 건설사업 준비 - 삼성물산 건설부문, 포스코이앤씨 등은 글로벌 버티포트 시장 개척 나서고 있으며 한국공항공사와 버티포트 시장 진출 위한 업무협약 체결. UAM 버티포트 건설이 초기 단계인 만큼 글로벌 시장 선점 위한 물밑 작업 전개. 업계 관계자는 “UAM 상용화는 시간 지날수록 가속화될 것이 분명한 사업“이라며 “많은 건설사들이 이 사업 진출할 것이며 시장 선점 위한 작업도 치열해질 것“ 전망 |
| 대학교 | - (해당 없음) |
| 해외 | - (해당 없음) |
| 기타 | - (해당 없음) |

☞ 우주 분야

| 구분 | 제목 및 주요 내용 |
|-------------|---|
| <p>민간기업</p> | <p>☐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우주-방산 기술력으로 글로벌 진출 확대(2025.03.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디펜스와 한화방산 합병을 통해 항공·우주·방산 아우르는 '글로벌 초일류 혁신 기업'으로 성장 기반 확보. 해외시장에서 K9 자주포와 천무의 폴란드 수출에 이어 작년 7월 루마니아 국방부와 1조3828억원 규모 계약 체결하여 K9 자주포 54문과 K10 탄약운반차 36대 등 '자주포 패키지' 공급 예정. K9(K10 포함) 누적 수출 총액은 13조원 돌파했으며 NATO 회원국 중 6개국으로 확대 -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호주 정부의 병전투차량 도입사업에 레드백을 앞세워 선정되었으며, 다목적 무인차량 '아리온스멧'은 미국 국방부 해외비교성능시험 대상 선정 후 하와이 해병대 훈련장에서 성공적인 시험 완료. 2028년까지 소·중·대형급 차륜형과 궤도형 UGV 제품군 모두 확보해 글로벌 UGV 시장 선도할 계획, 밀렘 로보틱스와 공동 기술개발 및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 한국형 위성발사체 누리호 고도화사업 총괄 주관 제작사로서 10월 4차 발사 준비 중이며, 2024년 3월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사업 협상 대상자로 선정. F-15K 전투기, T-50 고등훈련기 등 공군 주력 항공기 엔진과 수리온 국산화 엔진 생산하며 항공기 엔진 분야 독보적 기술 보유. 글로벌 엔진 부품 사업에서 2032년까지 연간 매출 2조9000억원 달성 목표로 한국, 미국, 베트남 등 글로벌 생산기지 확대 중 |
| | <p>☐ 한화에어로스페이스-페리지에어로, 우주 수송기술 개발 협력(2025.03.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대표 로켓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우주발사체 스타트업 페리지에어로 스페이스가 미래 우주 수송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3월 26일 충북 옥천 페리지 로켓개발컴플렉스에서 이준원 한화에어로 우주사업부장, 신동윤 페리지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우주 수송기술 개발 및 연관 사업 분야에서 기술적, 영업적 역량 공유하기로 MOU 체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문단은 페리지가 개발 중인 우주발사체 '블루웨이1(BW1)'의 개발 현황과 연구시설 견학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국가 기간발사체 '누리호'의 체계종합업체로 활동, 2023년에는 2032년 달착륙선을 발사할 '차세대발사체' 민간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됨. 페리지는 액체 메탄 엔진 기반 우주발사체를 개발 중이며, 자체 개발한 3t급 터보펌프식 액체 메탄 엔진은 국가 전략기술로 인정받았고 최근 발사체 재사용을 위한 수직 이착륙 시험에도 성공 -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사업부장은 "양사가 보유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

| 구분 | 제목 및 주요 내용 |
|-------------|--|
| <p>민간기업</p> | <p>국내 우주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발언. 신동윤 페리지 대표는 "이번 협력이 페리지의 빠른 성장을 이끌고, 차세대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 이번 협력을 통해 우주 수송 분야에서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시너지를 통한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 발전 기대</p> <p>□ 우주산업 수혜주로 떠오른 로켓랩, 성장 가속화(2025.03.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캘리포니아 기반 우주 기술 기업 로켓랩(Rocket Lab)이 지난해 16회 로켓 발사 성공으로 상업용 소형 발사체 시장 선두주자로 부상. 2021년 나스닥 상장한 로켓랩은 상업 발사와 위성 제작 동시 추진하는 이중 전략으로 스페이스X에 이어 우주군(US Space Force) 발사 시장까지 진출 중. 2006년 뉴질랜드 출신 항공 우주 엔지니어 피터 벅이 설립한 이 회사는 발사 서비스, 위성 제조, 우주선 구성 요소 및 궤도 관리 솔루션 제공 - 대표 발사체인 '일렉트론'은 저비용 고효율 소형발사체로 평가받으며 2018년 1월 첫 궤도 발사 후 매년 미국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 다음으로 자주 발사, 지금까지 200개 이상 위성 궤도 진입 성공. 작년 16회 발사는 전년 대비 60% 증가한 수치로 기술적 안정성과 수요 확대 입증. 2019년 발표한 '포톤' 우주선 플랫폼은 NASA 달 탐사 임무인 '캡스톤' 프로젝트에 사용됐으며, 현재 개발 중인 중형급 로켓 '뉴트론'은 내년 하반기 첫 시험 발사 목표 - 로켓랩은 저비용 대량 생산 위성인 '플랫렐라이트' 개발로 위성제조 영역 확장 중. 작년 4분기 매출은 1억3239만 달러(약 1947억원)로 전년 동기대비 120% 증가했으며, 순손실은 5194만 달러로 다소 개선. 키뱅크 캐피탈 마켓 애널리스트는 "로켓랩이 스페이스X처럼 공격적 성장 궤도 진입 중" 평가. 2026년 흑자전환 예고했으나 단기적으로는 뉴트론 시험발사 일정 지연과 올해 1분기 매출 전망 하향 등 과제 존재. 우주 산업의 대표 성장주로서 장기적 성장 수혜 이어갈 전망 |
| <p>대학교</p> | <p>□ 한서대, 민간 궤도 수송선 개발 기업과 업무협약 체결(2025.03.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서대학교가 3월 26일 태안캠퍼스 대회의실에서 한국 최초의 민간 궤도 수송선을 개발하는 인터그래비티 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InterGravity)와 업무협약 체결. 이번 협약으로 InterGravity는 한서대 태안캠퍼스 내에 우주추진시험 인프라를 구축하여 궤도 수송선 연소시험과, AI 기반 심우주 자율 항행 연구, 루나 랜더와 호퍼의 비행시험 수행 예정 - 협약 내용은 △랜더와 호퍼 시험기의 비행시험을 위한 협력 △한서대 태안캠퍼스 내에서의 우주추진시험 및 UV랜드 등을 활용한 시험기 비행 △시험시설 및 인프라 활용에 대한 기술적, 행정적 지원 △AI 기반 심우주 항행 및 로봇틱스 기 |

| 구분 | 제목 및 주요 내용 |
|-----|--|
| 대학교 | <p>술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등 포함.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궤도 수송선의 성능 시험과 AI 기반 심우주 항행 및 로봇틱스 기술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정보 및 인프라 공유,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인력 교류 및 양성 등 협력 추진</p> <p>- InterGravity에 메탄엔진 기술을 이전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임병직 책임연구원도 함께 참석해 산학연 공동연구의 미래 방향성을 논의. 이훈희 AI로봇틱스학과장은 “이번 협약은 우주 분야의 실질적 산학연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한서대 태안캠퍼스가 궤도 수송선과 자율항행 기술의 테스트베드로 자리매김할 것” 전망. 이번 협약은 대학의 인프라와 기업의 기술력을 결합한 우주산업 역량 강화의 모범 사례로 평가</p> |
| | <p>□ 국립창원대, 글로벌대학 선정·사천우주항공캠퍼스 개교로 새 도약(2025.03.30)</p> <p>- 국립창원대학교가 정부의 '글로벌대학30사업' 선정, 사천우주항공캠퍼스 개교,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등으로 도약의 전기 마련. 글로벌대학30사업 선정으로 경남의 2개 도립대학(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과 통합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전기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및 한국승강기대학교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연합해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무는 혁신계획 추진. 지역주력산업 연계 'K방산-K원전-K스마트제조' 분야 선도 계획을 'D.N.A'로 명명</p> <p>- 대학은 글로벌대학30사업에 5년간 총 6917억원 규모 정부·지자체 재정 지원 신청했으며, 기초연구 거점 육성 '지-램프(G-LAMP)' 사업, 국립대학육성사업 S등급, 스포츠·문화예술 콤플렉스 '아레나플렉스창원' 설립 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 대형 국책 사업에 잇달아 선정돼 전국 국립대학 중 유일하게 '국책사업 그랜드슬램' 달성. 3월에는 사천우주항공캠퍼스 개교로 우주항공 분야 고급 인재 양성 체계 구축</p> <p>- 대학과 지역사회 숙원인 캠퍼스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성장동력으로 작용.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GB)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에 '창원 도심융합기술(R&D)단지'가 선정돼 국립창원대 용지에 국책연구원을 설치하고 지역 핵심 산업 연계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도시융합 R&D 클러스터 거점' 조성 계획. 227만㎡ 규모로 조성되는 이 단지는 직접 투자 8000억원, 생산 유발 1조3000억원, 고용 유발 1만4802명의 경제 효과 기대</p> |
| 해외 | <p>- (해당 없음)</p> |
| 기타 | <p>□ 우주 팽창 이론 변화, 암흑 에너지 밀도 감소 현상 발견(2025.03.27)</p> <p>-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하는 '암흑 에너지(dark energy)' 밀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 발표. 학계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표준 우주 모형'에 따르면 우</p> |

| 구분 | 제목 및 주요 내용 |
|----|---|
| 기타 | <p>주는 138억년 전 대폭발로 탄생 후 끊임없이 팽창, 이를 이끄는 암흑 에너지는 일정 상수로 여겨졌으나, 국제 공동 연구진이 1500만개 은하와 퀘이사 관측 데이터 분석 결과 45억년 전보다 암흑 에너지 밀도가 10% 낮아진 사실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애리조나 키트피크 천문대 '암흑 에너지 분광 장비(DESJ)'를 통해 수집된 이 데이터는 기존 상수 가정보다 암흑 에너지 밀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모형이 관측 결과를 더 잘 설명한다는 결론 도출. 한국천문연구원 샤페엘루 알만 박사는 “암흑 에너지가 상수가 아닐 수 있다는 엄청난 발견의 시작“이라 평가했으나, 이번 발견은 과학적 발견으로 선언하는 신뢰도 5시그마에 미치지 못한 4.2시그마 수준 - 이러한 변화는 우주 종말 가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현재 모형에서는 우주가 끝없이 확장되는 '빅 프리즈' 가설이 우세하나, 암흑 에너지 약화 시 우주 팽창이 중단되고 한 점으로 수축하는 '빅 크런치' 가능성 제기. 암흑 에너지 비밀 규명을 위해 유럽우주국의 '유클리드' 우주망원경, NASA의 '낸시 그레이스 로먼' 우주망원경 등 다양한 국제 프로젝트 진행 중. 이형목 천문연 중력파우주연구단장은 “현대 우주론 최대 수수께끼인 암흑 에너지 성질이 서서히 밝혀지는 중“ 평가 |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부)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